

# “跳躍의 디딤돌을……”

— 法改正 推進強化와 企劃弘報時代로 —

吳 雄 錫

서울시 지부장

### ● 年輪의 基盤이

우리協會는 1965年 10월23일, 會員 128명이 모여 創立總會를 開催하였고 동년 12월 3일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得하여 설립되었다.

19년이 되는 오늘날, 全國會員의 數는 2,179명(84. 6.30일 현재)에 이르렀고 協會의 組織도 크게 整備되고 우리들의 宿願이었던 會館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年輪이 준 이 基盤을 이룩하기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 經濟與件 속에서 어렵게 자리를 지키며 發展시켜나온 先輩諸賢과 同僚의 努力에 進심으로 尊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基盤이 더욱 견고히 굳혀져 나갈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 밖으로 눈을 돌려야

우리協會는 本부와 산하13개 市道支部의 全國의인 單一組織하에 運營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豫算의 大部分이 일반사무 經常費와 建築士誌의 出版費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社會的 地位와 活動與件을 改善해 나가기 위한 調查研究費 및 弘報費 등은 全体構成의 小部分에 不過한 정도여서 對外的인 필요한 措置를 充分히 取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節約豫算은 어느 경우에도 當然한 原則이다. 그러나 現狀維持와 名分上 事業費 程度의 한정된 豫算을 가지고 協會를 運營한다는 것은 恒常 發展없이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하게 될 것이며 그야말로 豫算의 浪費이면서

도 공(功)없이 時間만 보내는 結果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協會는 그동안 다져온 基盤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는 집안살림보다는 밖으로 눈을 돌려 對外的인 與件改善에 全力을 다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 ● 法改正의 結實을

우리協會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時急하고 重要的인 業務 중의 하나가 法的 補完과 改正推進인 것은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쉽게 解決되지 않고있는 것이 이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뜻에서 協會의 조직이나 運營面에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補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市道支部에서 建議된 事項은 本會 法分科委員會를 거쳐 理事會에 上達되어 방침이 논의된다. 그후에 그 方針을 具體的으로 措置하고 推進하는 專擔部署가 常設되고 必要的인 뒷받침이 됨으로써 활발히 活動할 수 있도록 組織과 運營을 더욱 強化시켜 建議된 내용이 신속히 結실을 보아 우리들의 權益擁護의 先導役이 되도록 조치하여야겠다.

### ● 企劃弘報時代로……

弘報의 必要性이나 그 成果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줄 안다.

우리協會의 弘報事業으로는 會員과 建築關係人들에게 배포되는 優秀한 建築士誌가 있으나 對社會 弘報面에서는 큰 役割을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나고 어려운 일을 하여 社會에 貢獻한다 하여도 그 事實을 널리 알리는 弘報手段이 없이는 우리들은 항상 그늘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T.V나 新聞 등에 우리들의 活動상황이 恒常 報道됨으로써 社會와 對話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理解 속에서 解決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들의 일은 빛나고 그 공(功)이 살아날 것은 뚜렷한 事實이다.

弘報費用이 얼마가 든다 하여도 그 成果는 몇십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며, 그 費用을 釀出하기 위하여 힘들인 것보다 더 크게 우리 회원 個人은 더욱 有利한 與件下에서 業務를 遂行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必要的인 豫算을 마련하고 弘報專擔部署를 常設하여 積極的인 企劃弘報에 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 跳躍의 디딤돌을

우리들은 어떠한 與件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社會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改善해 나가며 무엇이 가장 時急하고 重要的인 지 판단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和合團結하여 跳躍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나간다면 우리들 앞에는 不可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建築文化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이며 永久히 後世에 남겨져도 부끄럽지 않은 作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